

배터리업계, 중국산 저가 소재 ‘늪’… 산업 경쟁력 위태

가격·안정성 등 공급망 다변화 한계
中 의존도 심화… 시장 대응력 하락
업계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 절실”

국내 배터리업체들의 중국산 저가 소재 의존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중국압박 정책에 따라 ‘탈중국’ 전략을 꾀하고 있지만 막대한 전환 비용과 납기 불안, 품질·규격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국내 소재 산업 기반이 약화될 경우 향후 중국이 납품 가격을 인상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은 18.4%에 그쳤으며 그 중 한국산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양극재 원료와 배터리

/포스코퓨처엠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특히 중국산 음극재는 kg당 3~4달러로 국산 제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규모 생산 체계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 국내 배터리 소재 수입량의 약 70%가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양극재와 음극재는 각각 72%, 6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핵심 소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여전히 중국산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

션은 지난해 중국 상주리원으로부터 LFP양극재를 5년 동안 16만톤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은 데 이어 공급량을 26만톤으로 늘리며 계약을 수정했다. 계약 규모는 2조원 이상으로 지난해 글로벌 LFP양극재 시장에서 체결된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는 평가이다.

SK온은 지난 3월 중국 당성과기에서 오는 2027년까지 1만 7000톤의 하이니켈·미드니켈 양극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약 4300억원으로 추산되며 양극재 11만톤 추가 공급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I 또한 중국 시니어로부터 전기차 500만대 분량의 분리막을 공급받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에서 생산한 소재를 적용한 배터리와 이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배터리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해왔다. 여기에 저렴한 전기료, 낮은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 요소가

지 더해지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이차전지 핵심 소재·원료인 분리막, 전해액 등을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업에 최대 1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주요 배터리사들이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소재업계 역시 1분기 실적 회복에 성공했으나 성장세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정책 방향과 시장 환경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에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및 주요 소재 대부분은 해외에서 들여와 생산하고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라며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잡기는 어렵기에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직접한급제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포르쉐 카셰어링 시대 열리나… 연령·멤버십 등 진입 문턱

쏘카, 내달 ‘포르쉐 911’ 도입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목집중

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다음 달부터 ‘포르쉐 911 카레라 쿠페’를 카셰어링 서비스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고가의 스포츠카인 만큼 ‘아반떼N’과 같이 난폭운전과 전손사고 등의 우려가나 오고 있어 쏘카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쏘카는 수입차 ‘포르쉐 911 카레라 쿠페’를 오는 6월 카셰어링 서비스로 선보인다. 카셰어링 업계에서 포르쉐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0대 미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포르쉐 서비스 지역 및 색상 등 자세한 정보는 6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포르쉐 911 카레라’는 3 / 6기통 바이터보 차장 박서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392마력을 발휘한다. 신형 터보차



쏘카는 내달 ‘포르쉐 911 카레라 쿠페’를 카셰어링 서비스에 도입한다.

저가 장착된 박서 엔진은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PDK)와 결합해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제로백은 4.3초다. 차량 가격은 1억4240만원이다.

쏘카는 고성능 스포츠카 도입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실현시켜준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아반떼N’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10월 현대차는 고성능

브랜드 ‘N’ 출범 8주년을 맞아 쏘카와 협업을 진행해 ‘더 뉴 아반떼N’ 약 200대를 쏘카를 통해 전국에 투입했다. ‘일상의 스포츠카’를 가치로 내세우며 누구나 N차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고성능 차량인 N브랜드의 특성상 일반 고객이 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결국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부터 차량 전손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됐다. 또 SNS에 배기음 터트리기, 시속 200km/h 과속 주행 인증 등 난폭운전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쏘카는 이를 방지하고자 다음 달 포르쉐 카셰어링 서비스에 진입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인 이용요건은 만 21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고성능 스포츠카인 만큼 아반떼N과 같이 만 30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반떼N도 이용 연령을 만

26세로 설정했지만 잇단 난폭운전으로만 30세로 상향했다.

여기에 ‘쏘카클럽’ 등급에 따라 차량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쏘카클럽은 누적 주행거리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VIP 레벨(누적 주행거리 5000km~) ▲레벨7(3000km~) ▲레벨6(2000km~) ▲레벨5(1000km~) ▲레벨4(500km~)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많이 이용한 고객인 만큼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란 이유다, 이밖에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보험료를 추가로 할증하는 제도 등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안전한 운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10대 미만으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중기부·대중기협력재단 케이콘 연계 ‘K컬렉션’

우수 중소기업 日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일본 도쿄에서 ‘케이콘 재팬 2025(KCON)’와 연계한 ‘K컬렉션’을 열고 우리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7일 대중기협력재단에 따르면 K컬렉션은 CJ ENM이 주최하는 글로벌 한류 문화 페스티벌 KCON과 연계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알리고 수출을 지원하는 상담회 및 판촉전이다.

올해 K컬렉션에는 화장품, 식품, 패션, 콘텐츠 등 유망 소비재 분야의 중소기업 39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전년 대비 화장품과 식품 분야의 지원이 확대됐다. 이 중 19개사는 수출 경험이 적은 소상공인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LS에코에너지, 1분기 사상 최대실적 달성

매출 2283억, 영업이익 153억 기록

LS에코에너지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역대 1분기 기준 매출, 순이익 모두 최대치다.

LS에코에너지는 올해 1분기 잠정으로 매출 2283억원, 영업이익 153억원, 순이익 127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27.0%, 58.1%, 59.9% 증가한 수치다.

1분기 기준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1996년 설립 이래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번 실적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관련 수요 증가, 글로벌

전력망 확장과 같은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저 케이블과 신재생 전력망 솔루션 등 친환경 포트폴리오의 글로벌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유럽 시장에서 초고압 케이블 수출 확대와 동남아 전력 인프라 수주가 맞물리며 실적 성장의 양축을 형성하고 있다”며 “모회사인 LS전선과 크로스셀링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삼성重, ‘MLF-O’ 글로벌 선급 인증 획득

〈심해용 부유식 LNG 생산설비 표준모델〉

FLNG 기반 해외 수주 확대

삼성중공업이 심해용 부유식 LNG 생산설비 표준모델(Multi-purpose LNG Floater-Offshore/ MLF-O)을 개발해 납기 단축과 경제성이 뛰어난 F LNG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삼성중공업은 5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해양기술 박람회(OTC 2025)에서 노르웨이(DNV), 영국(LR), 미국(ABS) 선급으로부터 MLF-O에 대한 기본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MLF-O는 2023년 연안용 FLNG인 ‘MLF-N(Multi-purpose LNG Floater-Nearshore)’에 이어 개발한 두번째 표준 FLNG 모델이다.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표준화, 유연



5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해양기술 박람회에서 삼성중공업 장해기 기술개발본부장(부사장)과 DNV의 토르게이르 스테리(Torgeir Sterri) 수석 부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성, 고효율을 장점으로 하는 MLF-O와 MLF-N을 필두로 다수 해외 가스전 개발사업 프로젝트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롯데렌터카 ‘차방정 플러스’ 선포

롯데렌터카가 연초부터 치솟는 물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멤버십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롯데렌터카는 구독료 3000원에 주유·세차·주차 및 렌터카, 엔진오일 교체 할인 등 월 3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차방정 플러스 멤버십’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차방정 플러스 멤버십은 차량 유지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운전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매월 주유 5000원, 세차 3000원, 주차 2000원 등 총 1만원의 실속형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렌터카 1만원 상시 할인, 엔진오일 교체(방문정비) 1만원 할인도 제공된다.

연간 가입자에게는 차 사고 시 벌금 3000만원과 변호사 선임 비용 3000만원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 1년 무료 혜택이 주어진다.

/양성운 기자 ysw@